

남아공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 남아공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구제 사역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합니다.

저희의 대상은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로 소외 대상 중에

아주 가난하고 병든 가정들입니다. 더욱이 이곳의 성탄절 기간에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일할 수 없는 시기이고 저들이 마실 물도, 전기도 없이 살아가기에 그래도 최소한 약 1개월 동안 먹을 음식과 필요들을 구입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제 사역 대상의 목표 가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0가정이고 총인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러시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100 선교사



신학교 사역 기간 중 학생들과 함께 전도 특공대로 다니며 시베리아 땅 자체가 어려운 곳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역을 할수록 더욱 더 이 땅에 만연된 부정, 부패, 불법을 일상생활의 일부인 듯 인정하며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영혼들을 대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소송을 통해 성전은 물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한 자기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이 땅에 만연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끊어내려는 결단만이 교회가 세워졌을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찍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욕부진은 있으나, 정상인들과 함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정기적인 CT, MRI 검사 결과, 천골(꼬리뼈)에 전이된 암은 줄어들고, 암 활동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어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하길 바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 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치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적치료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해주세요.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오병수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이석증으로 인해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선교사

막내 세아의 왼쪽 다리 성장판 손상으로 척추가 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서 다리길이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살로 앞으로 많이 성장할 시기인데 왼쪽다리와 척추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2022년 12월 GMI-GKC 선교사 현황 : 59개국 327명 (자체 파송 76%)

12.04. 2022

GRACE 선교소식



공사를 담당하던 청년이 부상을 입어 한 달 동안 병원신세를 지는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 아르메니아에 더 많은 소망의 집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집짓기 프로젝트 (Building Hope Project) 의 첫번째 집이 드디어 완공되어,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완공행사를 가졌습니다.

공사 5개월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재료가격이 2배이상 뛰었고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더 이상 컨테이너에서 지내지 않아도 될 성도가족을 보고 있으니 그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르메니아 소식 전합니다

- 아르메니아 백승환 올가 선교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몰도바에 811개의 교회가 있고, 추가로 196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몰도바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몰도바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지난 9월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푸드박스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 집중하였고 10월부터는 OM관리부서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월 29일에는 몰도바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는데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OM 자체제작 지도를 통해 몰도바의 복음화율과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위해
2.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3. 언어(루마니아어, 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4. 학업(루마니아어, M.div 과정)에 필요한 지혜와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5.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6.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미얀마에서 사역소식을 전합니다

- 미얀마 ၇၀၀ ၀၀၀ 선교사



선교소식

지난번 김윤정 선교사의 찬양 집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 스킷드라마 찬양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준비한 발표회를 보며 실수가 있어도 열심을 다한 모습에 격려해주며 찬양의 기쁨을 나눕니다.

고아원 예배가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 공과 교육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는 고아원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정치적 안정과 사역의 안전을 위해
2. 고아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3. 청년자립 직업 훈련을 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 멕시코 이종식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11월22일 졸업식과 안수식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통신으로 2-4년동안 공부하던 3명의 신학교 졸업과 목사 안수식 그리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에 현지 교인 300여명이 모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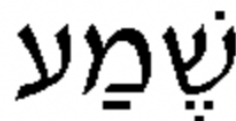
더불어 현재 3곳의 마약재활원에서 시작된 성경공부반에서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훈련 받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멕시코 땅에 참 된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쉐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1분단상 111-12월호>

-김대규 장로



Shema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아침, 저녁으로 외우며 행하는 말씀이 쉘마 (Shema)이다. 신명기 6장 4,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전체의 요지이며 신명기의 핵심이다. 신명기 6장4-9절, 11장 13-21절과 민수기 15장37-41절의 기도의 내용을 함축시킨 것이다.

이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Love the Loa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를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시험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4-40)”고 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 더욱 그렇다.

원래 쉘마의 의미는 “들으라”인데 이에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 믿으며, 그 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다.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까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하겠다.

쉐마는 율법이다. 놀랍게도 쉘마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쉘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온전하게 되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요15:12,13).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므로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다.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사랑인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 영혼구원, 전 재산인 두렵 돈을 바친 여인,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씻은 마리아 등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대로 자신들도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므로 서로를 섬기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된다. 고로 서로를 진정 으로 사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눈에 보이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새 계명의 사랑은 그 사랑의 동기와 방법과 내용이 구약의 쉘마와는 전혀 다르다. 구약의 큰 계명은 죄가 없고 흠없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적인 것이어서 완벽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므로 율법적인 쉘마에서 자유케 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랑은 구약의 의무적인 성격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의 진심어린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꼭 빠져 있는 사랑을 말한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진정으로 사랑을 즐기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리될 때 신앙을 즐길 줄 아는 참 신앙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